

평가조언표를 활용한 논술 평가와 고쳐 쓰기 지도 방안

박현동*

<차례>

- I. 서론
- II. 평가조언표 활용의 근거
- III. 평가조언표의 구성 요소와 활용법
- IV. 평가조언표 활용의 실제
- V. 결론

I. 서론

선택형 검사와 단답형 검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도입한지도 십여 년이 넘었다. 수행평가는 양적 평가(quantitative evaluation)보다는 질적 평가(qualitative evaluation)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기보다는 학습자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도입되었다.¹⁾ 이러한 수행평가는 내신 성적에 반영되고, 대학 진학의 입시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객관적 평가 준거 설정의 어려움으로 하여 평가의 신뢰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 경산과학고등학교 교사, maruni@paran.com

1) 임천택(1999), 「쓰기 수행 평가 원리 및 방법」, 『어문학교육』 제21집, 375쪽 참조

부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²⁾

특히 대학 입시에 반영되어 사회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논술을 수행평가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술형 평가³⁾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행평가 방법 중의 하나이다.⁴⁾ 논술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지만 평가 방법으로 활용될 때 명확한 평가 근거 없이 교사 개개인의 체험과 감에 의존한 인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신뢰도를 갖춘 평가를 위한 이론적으로 합의된 방법이나 추후 지도의 방법이 없기에 논술 평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곁들고 있는 것이다.

국어교육의 여러 연구 분야에서도 유독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데, 논술 평가에 대한 연구도 진척이 미미한 상태이다. 교육 현장에 논술 바람이 불도록 원인을 제공한 대학에서도 매년 논술고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대학마다 논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장 교육에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의 연구자들도 평가의 이론이나 현장 평가의 관행을 비판하면서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적 선언만 반복 재생산할 뿐 평가의 개선안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는 원칙만 강조하는 이론이나 실정이 다른 외국의 사례보다는 우리의 실태를 바탕으로 구안한, 바로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더 필요하다.

2) 박영민(2000), 「쓰기 수행평가의 평가준거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쪽 참조.

3) ‘논술형 평가’는 논술 쓰기의 방식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완결된 논술문을 쓰는 것을 기본으로 개요 쓰기, 요약하기, 서론, 본론, 결론 중 한 부분 쓰기, 빈 단락 채우기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술 평가’라 할 때는 수행평가의 한 방법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한 편의 완성된 논술문을 쓰도록 하여 그 논술문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서혁(2004), 「초등학교 국어과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20집’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이 전체 수행평가의 19%정도를 차지했고, ‘이희숙(2004), 「중학교 쓰기 영역의 수행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홍익대 석사논문』’을 보면 쓰기 수행평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서술형·논술형 평가는 38.7%로 가장 활용 빈도가 높았다. 또한 ‘염혜정(2006), 「작문 수행평가의 실태와 개선 방안」, 『이화여대 석사논문』’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서술형·논술형 수행평가가 84%를 차지했다.

수행평가 1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논술 평가 방법은 좀 더 신뢰도를 갖춘 평가 방법으로 진화될 필요가 있다. 현장교육에서 논술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실제 수행평가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논술문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다시 교수·학습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술 평가를 할 때 ‘논술 평가조언표’를 만들어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평가조언표는 논술 능력의 범주와 평가 요소를 체계화하여 논술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표인데, 평가자가 평가 조언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개별화된 평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지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평가조언표를 활용하면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로 주로 이루어지던 논술 첨삭지도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인 고쳐 쓰기로 개선할 수 있다. 논술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논술 평가조언표 만들기에서부터 그것을 활용하는 일련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평가조언표 활용의 근거

문제를 출제하여 논술문을 쓰게 한 다음 평가하는 논술 평가를 수행평가로 실시하려는 교사라면 평가에 앞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첫째, 이번에 논술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논술 평가를 하기 전에 어떻게 사전 지도를 할 것인가?

셋째, 논술 평가를 위해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넷째, 논술 평가를 하는 시기와 실시 시간, 분량 등 적절한 방법은?

다섯째, 학생 논술문의 평가 방법은?

여섯째, 평가 결과를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가?

일곱째, 평가 후 고쳐 쓰기 지도 방법은?

여덟째, 고쳐 쓰기 지도를 할 때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논술 평가를 실시하려는 교사는 위와 같은 질문을 하여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논술 평가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논술 평가를 실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논술 문제 출제를 잘한다면 학생들에게 논술을 쓰게 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교수·학습의 성취 정도와 사고력을 반영하는 논술 능력의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평가 방법이다.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논술 평가는 평가의 타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평가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효용성이 큰 평가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논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조언표 활용을 제안한다. 평가조언표는 논술 능력의 범주와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평가표 부분과 고쳐 쓰기로 연결하기 위해 평가 조언을 쓰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표이다. 왜 ‘논술 평가조언표’를 활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먼저 논술 평가를 할 때 ‘평가 요소에 따른 평가 표’가 왜 필요한지를 논의한 다음, 고쳐 쓰기를 하기 위한 ‘평가조언표’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글로 쓴 결과물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총체적 평가 방법보다는 분석적 기준을 바탕으로 좀 더 엄격한 평가를 하는 분석적 평가 방법이 신뢰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⁵⁾ 총체적 평가 방법은 주로 인상 평가의 방법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 주관은 편견이나 독단과는 다른 것으로 답안에 대한 공통된 합의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분일 수 있다. 논술을 전체적인 유기성의 측면에서 평가하면 논술의 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상대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사 개개인의 평소 체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한 주관에 의한 평가가 경우에 따라서 더 정확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하는 논술 평가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때 총체적

5) 김라연(2007), 「총체적 쓰기 평가와 분석적 쓰기 평가의 상관 연구」, 『이중언어학』 제35호, 113-121쪽 참조.

평가 방법으로 하면 논술문을 평가한 다음 다시 검토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감이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또 이 총체적 평가 방법은 평가로만 끝나고 논술을 수정하도록 고쳐 쓰기를 지도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논술을 분석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할 때 논술의 요소를 점수화하여 문장 구성력은 몇 점, 논리적 전개 능력은 몇 점으로 점수를 주어 합산하는 방식은 얼핏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논술의 특성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논술 능력은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각각의 요소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완벽하게 주관성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때 발휘되는 주관 역시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주관이기는 하다. 실제로 완벽하게 객관적인 평가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객관성 문항조차 출제자의 주관에 따라 작성된 문제 출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정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술 평가를 할 때 분석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요소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편의 논술문은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지 않고 글의 특정 부분만을 분리하여 평가하면 논술문 전체에 대한 판단을 잘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술문의 전체 맥락 속에서 범주에 따라 미시적으로도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설정하여야만 한다. 또 이러한 평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점검하는 총체적인 판단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의 논술 능력에 바탕을 둔 평가 요소를 구조적으로 배치한 ‘평가표’를 만들어 활용해야 총체적 평가 방법과 분석적 평가 방법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논술문의 전체 맥락에 따라 평가 요소를 구조적으로 배열하여 만든 평가표는 논술문을 쉽게 평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논술 능력을 신장시키는 활동의 준거가 된다. 수행평가로 논술 평가를 실시할 때 이러한 평가표를 활용하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를 납득시킬 수 있는 평가의 증거 자료를 명확히 남길 수 있다. 또한 평가한 논술문과 평가 결과인 평가표들이 축적되어 있으면 학습자의 논술 능력 발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표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표본들은 이후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논술 평가에서 '평가조언표'가 필요한 이유를 논의해 보자. 이제까지 쓰기 평가는 평가 후 이어지는 추후 지도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수행평가의 경우 학생들의 활동을 평가한 후 추후 지도를 해야 학생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평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논술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추후 지도를 하여 부족한 부분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 논술 평가의 경우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평가만으로도 벅찬데 추후 지도는 엄두를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단지 시간상의 이유만으로 추후 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평가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술 평가를 하려면 추후 지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추후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논술 첨삭지도는 교사가 학생의 논술문에서 틀린 부분을 붉은 색 펜으로 수정해 주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평가자의 글쓰기 감각에 의존하여 틀린 부분을 모두 수정하는 논술 첨삭지도는 시간이 많이 걸려 평가자에게 부담이 많다. 또 지적받은 오류를 한꺼번에 수정해야 하는 학습자의 경우 논술 쓰기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평가조언표를 활용할 수 있다.

논술 평가조언표는 논술 평가를 할 때 학습자의 논술 능력의 발달 정도를 판단한 다음 그 단계에 맞는 평가 조언을 해서 학습자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가장 핵심적으로 지도할 두 가지 평가 요소에 대하여 개별 처방이 되도록 평가 조언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고쳐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고쳐 쓰기 지도에 평가 조언을 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현재 다분히 체계 없이 하고 있는 논술 첨삭지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별 학생들의 논술 쓰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평가 조언은 학교 현장에서 많이 해왔던 방식이다. 가장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 일기를 쓰면 담임선생님이 일기 말미에 의견을 덧붙여 주는 것도 간단한 형태의 평가 조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론적인 체계 없이 하는 것을 학습자가 스스로 적절한 고쳐 쓰기를 할 수 있도록, 논술 능력의 범주와 평가 요소에 근거하여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평가 조언을 평가조언표라는 양식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다.

교사들은 평가를 할 때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논술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의 논술 능력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무엇을 핵심적으로 지도해야 할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장시간을 투자하여 논술 첨삭지도를 해줄만한 충분한 시간도 여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 교육 현장에서 논술 첨삭지도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대부분 일회적인 지도에 그치고 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가조언표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논술문에서 빨달 수준을 판단하여 쉽게 점수를 수치화할 수 있고, 부족한 논술 능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학습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조언을 쓸 수 있다. 논술 평가조언표를 어떻게 만들지를 이어서 논의해 보자.

III. 평가조언표의 구성 요소와 활용법

1. 논술 능력과 평가 요소

1) 논술 능력

학생이 쓴 논술문을 평가하는 것은 학습자의 ‘논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논술 평가는 학습자의 논술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더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하기 위

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논술 능력이야말로 논술 평가의 기준을 만드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술 평가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논술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논술 능력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⁶⁾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의 답안을 잘 쓰는 능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히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논술 능력은 ‘학습한 결과를 평가하는 논술형 문제가 주어질 때 고차적인 사고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안을 논술문의 형태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교수·학습으로 얻은 지식을 활성화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조직된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논술 능력이다.

논술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논술 능력의 범주와 요소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까? 먼저 대학 입시에서 활용하는 논술고사의 평가 기준을 참고해 보자. 대학입시에서의 논술고사는 주로 논술 문항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글 읽기 능력과 문제를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논리적 표현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각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논술 평가 기준은 주로 독해력(이해력), 논리적 사고력(논증력), 창의적 사고력, 표현력(조직력, 구성력)으로 파악된다.⁷⁾ 문제의 유형과 평가 영역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위의 네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기준은 인간의 사고 기능(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에 따른 분류에 표현력과 이해력을 덧붙인 것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김진경(2005)은 논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 능력을 기준으로 논술 능력의 구성 요소로 가치 평가 능력, 종합적 사고 능력, 범

6) 김진경(2005),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4-25쪽 참조

7) 앞의 논문, 56쪽

교과적인 지식, 표현 능력을 들고 있다.⁸⁾ 가치 평가 능력을 이해력이라 본다면 범교과적인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점만 다르고 이외의 것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식을 논술 능력에 포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학생들이 논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식의 문제이다.⁹⁾ 내용을 생성할 때 필요한 배경지식은 논술 능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 입시의 논술 고사 채점 기준에 지식 부분에 대한 점검이 없는 것은 본고사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미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논술교육의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논술 평가는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인 지적 성취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여야 하기 때문에 지식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만 한다.

논술 평가는 객관식 검사가 측정하지 못하는 학습 성취도인 배운 지식을 활성화하여 내용을 생성, 조직,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그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논술 능력은 복합적이어서 국어 능력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¹⁰⁾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술 능력의 수준을 판단하려면 논술 능력의 범주를 나눌 필요가 있고,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범주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논술문에는 복합적인 논술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논술 능력에도 상대적으로 표충이라 할 수 있는 표현 능력과 상대적으로 심충이라 할 수 있는 사고와 논리가 드러나는 사고력의 부분이 있다. 또 표현과 사고력의 근간에는 당연히 지식의 영역이 있다. 이러한 층위에서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평가의 관점으로 보면 지식의 성취 정도에 초점을 맞추면 지식에 초점을 둔 평가가 될 수 있고, 수사

8) 앞의 논문, 36-37쪽 참조.

9) 원진숙(1995), 『논술교육론』, 박이정, 152쪽 참조.

10) 논술 능력은 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구술 능력이라 한다면 쓰기가 아니라 말하기로 표현하는 것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나 문체 등에 초점을 맞추면 표현에 초점을 둔 쓰기 평가가 될 수 있고, 사고와 논리에 초점을 맞추면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다. 논술 능력의 층위를 위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 범주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논술 능력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두 번째로 논술 능력은 ‘표현 능력’이다.셋째, 논술 능력은 ‘사고력’이다. 이러한 지식, 표현 능력, 사고력의 범주는 각각의 세부 평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논술 능력의 범주를 지식, 표현 능력, 사고력의 순서로 설정한 것은 논술 능력의 성취 단계를 논술 지도에 적용해 보려는 의도적인 구분이다. 실제 논술을 평가할 때 경험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점검하게 되는 것이 지식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표현능력의 측면이고, 세 번째로 논술에 반영된 사고력을 점검하게 된다. 논술 능력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지식, 표현 능력, 사고력의 순서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범주에 따른 평가 요소가 설정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도 하고 논술 지도도 하게 된다. 평가 요소를 평면적으로 나열하여 배열하는 것보다 위계에 따라 배열하여 오류를 많이 보이는 단계에 집중하여 개별 처방이 되는 지도를 한다면 추후 지도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논술 능력은 복합적인 능력이고 학생들마다 논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른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논술 능력의 성취 수준을 단계화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논술의 초보자에게 수준에 맞지 않는 심화된 논술 능력을 지도하는가 하면, 논술 첨삭지도를 할 때 학생들이 논술문을 쓸 때 보이는 모든 오류를 한꺼번에 다 고쳐주려고 하는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 논술 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이유는 논술 평가의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논술 능력의 범주를 지식, 표현 능력, 사고력의 순서로 나누고 이를 논술 능력의 층위로 보고자 하였다. 이를 적용하면 지식 단계에서 내용 생성이 안 되는 학생은 지식 단계에 알맞은 지도를 우선해서 할 수 있고, 표현 단계에 오류를 많이 보이는 학생은 표현 능력 단계의 지도를 먼저 할 수 있게 된다. 각 단계의 오류를 복합적으로 보일 때에도 무엇을 우선하여 지도할 것인지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

게 되고, 그러면 논술문의 모든 오류를 한꺼번에 수정해 주려는 비교육적 태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논술 능력의 범주에 따른 논술 평가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2) 논술 평가의 요소

논술 평가를 평가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요소를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평가 요소가 분명해야 신뢰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또한 논술 능력에 근거를 두고 논술문의 전체 맥락을 생각하면서 설정하여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대로 논술 능력의 범주인 지식, 표현 능력, 사고력을 기준으로 각각의 평가 요소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평가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논술문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자.

원진숙(1995)의 평가 기준¹¹⁾

- 1. 글의 내용 영역
 - 1) 내용의 통일성
 - 2) 주제의 선명성
 - 3) 논증의 타당성
 - 4) 결론의 적절성
 - 5) 사고력
- 2. 글의 구성 영역
 - 1) 문단 전개 방식
 - 2) 글의 논리 구조
- 3. 글의 표현 영역
 - 1) 맞춤법 / 띄어쓰기
 - 2) 적절한 어휘 사용
 - 3) 문장의 정확성
 - 4) 응집성
 - 5) 적절한 문체

주강식(1996)의 평가 기준¹²⁾

- 1. 내용
 - 1) 내용의 필요충분성
 - 2) 논거의 적절성
- 2. 표현
 - 1) 어휘의 적절성
 - 2) 논리적 구성 능력

11) 원진숙, 앞의 책, 136-137쪽.

12) 주강식(1996), 「논술의 평가」,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5쪽.

3) 정서법

4) 문체의 적절성

원진숙(1998)의 평가 기준¹³⁾

1. 표현—문법적 언어능력 측정

- 1) 원고지 사용법
- 2) 띠어쓰기/ 맞춤법
- 3) 적절한 어휘 사용
- 4) 문장의 정확성
- 5) 텍스트 응집기제 응용
- 6) 논술에 적합한 문체 구사

2. 구성—담화 구성 능력 측정

- 1) 문단 전개 방식
- 2) 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

3. 논리—논리적 사고력

- 1) 사고의 깊이
- 2) 정확한 지적 정보
- 3) 적절한 근거 사용
- 4) 타당한 논증

4. 문제해결능력

- 1) 문제 파악
- 2) 논점 파악
- 3) 문제의 본질과 핵심 파악
- 4) 유창한 사고
- 5) 문제—해결 구조의 틀
- 6) 적절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 제시

5. 설득력—사회적 인지능력

- 1) 독자 범주 설정 여부
- 2) 설득력 있는 주제 전달
- 3) 독자 공감 여부

김미영(2004)의 평가 기준¹⁴⁾

1. 문장표현력

- 1) 원고지 사용법
- 2) 맞춤법 및 띠어쓰기
- 3) 어휘의 적절성, 어법 및 문법적 문장

2. 글의 짜임

- 1) 문단 구성 방식
- 2) 단계적인 구성, 통일성, 일관성

3. 창의성

- 1) 심층적 사고력
- 2) 유창한 사고력(독창성)

4. 문제해결력

- 1) 문제 의도 파악
- 2)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따른 전개

13) 원진숙(1998), 「논술 능력 평가 기준과 논술 교육의 방향」, 서울교육대학교.

14) 김미영(2004), 「논술문 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77쪽.

- 3) 문제 해결 방안이나 대안 제시
 5. 논리적 근거 설정 능력
 1) 근거의 타당성 및 적절성

오찬세(2006)의 평가 기준¹⁵⁾

1. 내용의 생성
 - 1) 논제 파악과 독해의 정확성
 - 2) 논증의 타당성
 - 3) 사고의 풍부성과 창의성
2. 내용의 조직
 - 1) 문단 구성의 적절성
 - 2) 글 구성의 효율성
 - 3) 내용의 일관성
3. 내용의 표현
 - 1) 어법의 정확성
 - 2) 문장의 정확성
 - 3) 문체의 적절성

논술문의 평가 요소를 밝힌 선행연구 중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제시해 보았는데 쉽게 정리가 안 될 만큼 복잡하고, 각 평가 요소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분석적인 평가 기준들은 논술문 전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간과하게 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피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때 각 평가 요소를 좀 더 판단하기 쉽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논술 능력의 ‘지식’ 범주를 평가의 범주나 요소로 설정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논술 평가가 대학 입시의 논술고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수·학습의 결과를 확인하는 평가는 학습자의 지적 성취를 확인해야만 한다. ‘정확한 지적 정보’나 ‘문제의 의도 파악’이나 ‘논제 파악과 독해의 정확성’은 이해력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교수·학습의 결과로 지식을 습득하였는가와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식 범주는 논술 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평가 요소이

15) 오찬세(2006), 「과학고등학생 논술문의 수준별 양상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9쪽.

다. 아무리 너그러운 평가자라도 핵심적인 지식 정보가 틀린 논술문에 일부 다른 평가 요소를 만족했더라도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교수·학습으로 습득한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요소이다.

이 지식 범주의 하위 평가 요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은 앞선 선행연구의 평가 요소들을 종합하여 지식 범주에서 세 가지를 평가 요소로 설정하고자 한다.¹⁶⁾ 즉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는 ‘논점의 파악’과 지적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지식의 활용 정도’, 내용에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를 살피는 ‘내용의 통일성’을 평가 요소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표현 능력’의 범주이다. 선행연구의 평가 기준에는 모두 표현 능력을 논술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논술문의 평가에서 쓰기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글쓰기를 평가할 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사고력을 중심으로 하는 논술의 전체 맥락을 놓칠 가능성성이 있다. 또한 어법에 맞는 글쓰기도 문장 쓰기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논술을 쓸 때 사고의 활성화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에 발목이 잡혀서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맞춤법과 띄어쓰기, 어법 등은 논술 평가에서 부차적인 부분으로 점검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오류를 하나하나 세어서 감점을 하는 방식은 논술 평가에서 지양해야 한다. 표현 능력 단계의 논술 지도를 할 때는 표현 능력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

16) 이 글에서 제시한 평가 요소 설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획 의도와 논문의 분량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의 과제로 넘긴다. 평가 요소 설정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만 논의하는 것보다는 실제 논술 평가와 고쳐 쓰기에 적용해 보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이 더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동일한 평가 기준을 설정한 연구자는 없었다. 또 하나의 평가 기준을 더하는 것에 그 치기보다는 현장 적용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검증했으면 한다.

도해야 하며,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학생의 경우도 표현 능력에 집중하여 고쳐 쓰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둔 논술 평가에서는 맞춤법, 띠어쓰기, 어법 등을 표면적인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아이디어 생성과 같은 사고력에 중점을 둔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하나 논술에서 ‘구성’이나 ‘내용의 조직’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성은 따로 범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표현 능력의 하위 요소로 볼 것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논술문의 구성을 잘 한다는 것은 표현 능력으로도 사고력으로도 볼 수 있다. 논리적인 구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구성은 사고력의 측면에서 점검해야 할 것도 같다. 하지만 문단을 적절하게 썼는지와 문단의 연결 관계가 적절한지는 표현 능력의 범주에서 점검해야 한다. 논리적인 표현이란 말도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라 하여 무조건 사고력의 측면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성의 논리적 측면은 사고력 범주로 논증의 차원에서 점검하더라도 문단과 단락의 연결 관계는 표현 능력의 범주에서 ‘구성의 적절함’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본다면 표현 능력의 하위 요소는 문장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어휘의 적절함’, 논술에 적합한 문장을 쓰고 있는지를 살피는 ‘문장의 적절함’, 또 논술의 흐름에 맞는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구성의 적절함’의 순서대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은 ‘사고력’의 범주이다. 논술을 해야 하는 주요 이유가 사고력 신장에 있다면 논술 평가에서는 사고력을 가장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평가 기준에서는 사고력이 비중 있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원진숙(1998)만이 ‘논리’를 따로 설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 내용 영역의 하위 범주로 보거나 아예 설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논술문을 통해 사고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지도를 통해 성취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평가 요소로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사고력이 길러지기를 바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와도 같다. 논술의 초점이 사고력에 있다면 지식 범주와 표현 능력의 범주보다 더 많

은 비중을 두고 지도하고 점검해야만 한다.

사고력은 하위 요소로 분류하기 어렵다. 하위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리가 있으면 설득력이 있고, 아이디어 생성을 잘하면 독창성이 있다고도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평가 요소로 설정하지 않으면 지도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분류하여 설정하여야만 한다. 다만 고차적인 사고력은 학생들의 논술문을 평가할 때 찾아보기 어려워 평가 요소로 설정하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교육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기본 관점을 가지고 사고력의 범주에서는 어떻게 평가 요소를 설정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

먼저 사고력의 범주 안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내용 생성 능력을 평가 요소로 넣어야 한다. 교수·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과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자신의 의견을 만드는 내용 생성 능력은 논술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사고력의 범주에서 평가해야만 한다. 논술을 지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들이 논술을 쓰려고 할 때 스스로 자기 의견을 생성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 생성이 안 되어 논술 쓰기를 어려워하는 데에 있다.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생성할 수 있는가는 논술에서 점검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 부분은 지식 범주에서 지식의 활용 정도를 점검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지식의 활용 정도는 지식을 활용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있다면 ‘자기 의견 생성’은 여러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자기 의견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고력의 범주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점검해 주어야만 한다.

이 부분에서 선행연구의 평가 기준에서 두 번이나 제시된 ‘문제 해결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논술을 흔히 문제 해결의 글쓰기라 하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술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논술문의 평가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논제에 대하여 적절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도 힘든데 해결 방안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은 대개는 지나치게 어렵고 무리한 요구가 되고 만다.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맞게 하면 되기야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논술 문제를 볼 때 우리 사회의 조급한 실적주의와 피상성, 상습화된 거짓말이 내면화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면 학생들에게 설익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기 생각이 아닌 채로 적당히 얼버무린 당위적인 결론만을 쓰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따로 논술의 평가 요소로 설정하지 않고, ‘자기 의견 생성’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점검하고 표면적인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음으로 사고력에서 ‘논리’와 ‘논증’을 빼놓을 수 없다. 논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는데, 논술문에서는 전제와 결론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꼭 따져 보아야만 한다. 논증이라 하여 반드시 논리학의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술에서 자기 의견을 정당화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논증이며, 이러한 논증의 타당함을 살피는 것은 논술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논증의 타당함을 살피 때는 논거의 정당성과 반론을 염두에 두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론을 예상하고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논증을 잘 구성해도 반론으로 하여 자신의 논리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논술에서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논술은 대체로 있었던 의견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정하고 논증을 통하여 그 의견의 정당성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글쓰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증은 추상적인 공허한 논리가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자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실천적 태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고력의 범주에서 ‘논증의 타당함’을 평가 요소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사고력의 범주에서 ‘설득력’을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설득력은 논리와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논리와 다른 측면에서 점검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¹⁷⁾ 논리가 주로 논증의 형식으로 판단

17)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을 증명(proof)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증명의 방식으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로고스(Logos)는 이성적인

된다면 설득력은 주로 근거의 정합성으로 얻어진다. 설득력은 또 논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감화를 필요로 한다. 신뢰는 논리적 관계뿐만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감화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면 설득력은 근거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달려 있고, ‘논증의 타당함’의 요소와는 점검해야 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설득력’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고력의 요소 중 또 하나는 가장 수준 높은 사고력으로 창의력을 생각할 수 있다. 창의력은 논술 평가에서 꼭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⁸⁾ 그런데 창의력은 포괄하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 창의적인 표현도 가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 창의적인 구성도 가능하다. 즉 창의력은 논술만으로 높일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창의적 사고의 특징으로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트리는 유연성(flexibility)과 다양한 종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풍부성(fluence), 잘 다듬어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교성(elaborativeness), 자신만의 해결책을 용기 있게 제시하는 독창성(originality) 그리고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등을 들 수 있다.¹⁹⁾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논술을 쓰는

것으로 어떤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제시된 모든 언어적 형태의 논리를 말한다. 에토스(Ethos)는 화자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에토스는 사안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식(good sense)과 선의의 목적으로 청자의 이익을 위해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의(good will)와 도덕적 품성 등의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파토스(Pathos)는 설득에 영향을 끼치는 청자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청자가 어떤 감정적·정서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설득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때에 따라 감정은 논리적·이성적 판단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행동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 18) 서울대학교 ‘논술고사 체점 항목 및 기준’(2007. 2. 22)을 보면 이해·분석력(20점), 논증력(30점), 창의력(40점), 표현력(1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 창의력에 가장 비중을 두고 평가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 세부 항목으로는 심층적인 논의 전개, 다각적인 논의의 전개, 독창적인 논의 전개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논술에서 작용하는 사고력을 논증력과 창의력으로 보고 여기에 70%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 서정혁(2008), 『논술교육, 읽기가 열쇠다』, 커뮤니케이션북스, 83쪽 참조.

상황에서 이러한 창의적 사고를 발휘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시험 상황에서 쓴 초고 수준의 논술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학생은 아주 드물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평가 요소로 설정하게 되면 김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평가 요소로 설정하지 않게 되면 논술 지도에서 창의적 사고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야말로 창의적 사고가 발휘되어야만 할 것 같다.

먼저 창의력 가운데 유연성과 풍부성, 정교성은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중등교육의 단계에서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상투적이지 않는 남다른 생각을 보여주는 독창성은 반드시 평가 요소로 강조할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논술문을 평가해 보면 획일적이라 할 만큼 상투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논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독창성이라는 요소를 강조하면서 다른 창의적 사고의 특성도 성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움’과 ‘적절함’을 동시에 충족하는 독창성을 강조한다면²⁰⁾ 다른 창의적 사고의 특성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남은 문제는 비판적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도 평가 기준이나 논술 지도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를 평가의 기준으로 표면에 내세우면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하기도 하겠지만 모든 것을 비판하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무리한 비판에 점수를 줘야 할 경우가 생긴다. 비판적 사고도 남다르게 보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되 ‘독창성’의 요소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사고력의 범주에서는 자기 생각에서 나온 뚜렷한 의견이 있는지를 살피는 ‘자기 의견 생성’과 논증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는지를 살피는 ‘논증의 타당함’, 근거가 적절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설득력’, 상투적이지 않는 남다른 생각과 비판의식이 있는지를 살피는 ‘독창성’을 평가 요소로 설정하였다. 위의 논의를 종합한 논술 평가요소표를 보면서 논의를 해 보자.

20) 박종훈(2004), 「쓰기 평가를 통해 본 국어과 창의성 개념 설정의 문제」, 『국어교육학 연구』 제20집, 388쪽 참조

<표 1> 논술 평가의 평가요소표

논술 능력 범주	평가 요소	평 가 내 용
지 식	논점의 파악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지식의 활용정도	학습한 지식을 잘 활용하였는가?
	내용의 통일성	내용에 통일성이 있는가?
표현 능력	어휘의 적절함	문장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문장의 적절함	논술에 적합한 문장을 쓰고 있는가?
	구성의 적절함	논술의 흐름에 맞는 구성을 하고 있는가?
사고력	자기 의견 생성	자기 생각에서 나온 뚜렷한 의견이 있는가?
	논증의 타당함	논증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는가?
	설득력	근거가 적절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가?
	독창성	상투적이지 않은 남다른 생각이 있는가?

실제로 논술 평가를 할 때 평가 요소를 반드시 위와 똑같이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논술은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평가이기에 백이면 백 다른 답안이 나올 수 있다. 논술의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논술 문제에 따라 달라야만 한다. 문제와 학생 수준에 따라 평가 요소가 더 복잡할 필요도 있고, 논술 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라면 평가 요소를 더 간단하게 설정할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평가요소표를 기본으로 문제의 수준과 지도의 초점에 따라 변형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또한 위 평가 요소들은 각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지식의 활용 정도와 자기 의견 생성, 독창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구성의 적절함과 논증의 타당함, 설득력도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평가요소표를 활용하여 실제 평가표로 만들 때는 총체적 판단을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 평가요소표를 설정한 것은 논술 능력에 근거하여 논술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 본 것이지만 논술 지도를 통해 성취해야 할 기준이기도 하다. 또 각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고쳐 쓰기로 연결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위 평가요소표의 평가 요소들을 위에서부터 기본적인 능력에서부터 심화된 능력의 순서로 보

고자 한다. 물론 지식 범주와 표현 능력 중 어느 것이 더 기본적인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위 평가 요소들이 학습자에게 순서대로 습득되는 것도 아니다. 지식 범주와 표현 능력 범주의 순서는 지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바꾸어도 된다. 다만 교사가 논술 지도를 할 때 지도의 체계가 있듯이 논술 능력의 범주와 평가 요소에도 그러한 체계를 만들면 학습자의 논술 능력의 수준에 따라 개별 맞춤식 평가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평가 요소 설정의 정당성은 실제 논술 평가에 투여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평가조언표 만들기

앞에서 제시한 논술 능력의 범주와 평가요소표를 활용하여 논술 평가에 활용할 논술 평가조언표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표 2> 논술 평가조언표(10학년 수준)

〈논술 평가 조언 표〉				
()학년 ()반 ()	논술 능력 특기사항			
논술능력 범주	논술 평가 요소	평가 요소 질문	평가	평 가 내 용
지식	논점의 파악	•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상	
		• 문제의식이 분명한가?	중	
		• 논의의 초점을 잘 잡았는가?	하	
	지식의 활용정도	• 사용된 지식이 정확한가?	상	
		• 학습에 따른 지적성취를 보이는가?	중	
		• 정보를 충분하게 활용하였는가?	하	
	내용의 통일성	•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상	
		•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중	
		• 주제의식이 선명한가?	하	
표현 능력	어휘의 적절함	•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상	
		• 학습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가?	중	
		• 어휘 사용이 풍부한가?	하	

표현 능력	문장의 적절함	• 문장이 정확한가? • 논술에 적합한 문장을 쓰는가? • 참신한 표현을 쓰고 있는가?	상 중 하	
		• 문단을 잘 구분하였는가? • 문단의 논리적 흐름이 적절한가? • 단계적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상 중 하	
사고력	자기 의견생성	• 스스로 의견을 생성하였는가? • 깊이 생각한 의견인가? • 적절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인가?	상 중 하	
	논증의 타당함	• 전제와 결론의 연결이 타당한가? • 논증이 이루어졌는가? • 반론을 염두에 둔 논증인가?	상 중 하	
	설득력	•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근거가 타당하여 공감할 수 있는가? • 과도한 일반화나 단정은 없는가?	상 중 하	
	독창성	• 새로운 발상을 하였는가? • 합리성을 갖춘 발상인가? • 비판의식이 작용하고 있는가?	상 중 하	
총체적 평가			평점	
평가 조언	구성의 적절함			
	논증의 타당함			

위 논술 평가조언표는 10학년 수준에서 논술 평가를 쉽게 하면서도 추후 지도로 평가조언을 통한 고쳐 쓰기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먼저 학생의 인적사항과 논술에 관심이 많다던가, 논술 수상 경력이 있다든가 하는 학생의 논술 능력에 대한 특기사항을 위에 적게 하였다. 그런 다음 논술 능력의 범주와 논술 평가 요소를 배치하여 일단 수치화하기 좋게 10개 항목을 상, 중, 하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평가 요소 질문을 설정하기에 따라 세 가지 항목을 다 충족하면 상으로, 두 가지만 충족하면 중, 그렇지 않다면 하로 평정할 수 있다. 학생들의 논술 능력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는 10점, 8점, 6점으로 점수를 줄 수도 있고, 10점, 9점, 8점으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평정하는 방법으로 변형해도 된다. 다만 논술의 경우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점수가 지나치게 낮으면 논술 쓰기에 부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주어지는 평가 시간동안 논술문을 완성할 수 있는 학생이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간 내에 논술문을 완성한 학생은 80점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논술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도 완성한 만큼 점수로 보상하여 의욕을 갖도록 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빨리 알려주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반드시 알도록 피드백을 해주어야 한다.

학생의 논술문을 평가할 때는 먼저 논술문을 읽고 오류가 있거나 논의해야 할 부분에 밑줄을 긋는다. 첨삭지도를 할 때 학생 논술문에 붉은 색 펜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류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학생들에게 논술 쓰기에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학생 논술문에는 밑줄만 그어서 학생이 스스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표 우측의 평가 내용에는 각 항목별로 질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조리 있게 기록한다.

논술 평가조언표의 총체적 평어 부분은 평가하는 논술문을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기 위해 마련한 부분이다. 논술문을 평가할 때는 지식, 표현 능력, 사고력의 원만한 조화와 결속을 평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기준이 없으면 추상적인 평가의 말이 되기 쉽다. 그래서 위 평가 요소 가운데 잘된 평가 요소 두 가지 정도와 가장 핵심적으로 수정해야 할 두 가지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간단한 평가의 말을 쓰는 방법이 좋다. 즉 ‘구성이 논리적이고 사고가 독창적’이라든지, ‘어휘 선택이 다양하고 문장이 정확하다’든지 하는 평가의 말을 써주면 된다. 성취된 논술 능력을 먼저 언급하고 보완해야 할 논술 능력을 덧붙여 짧게 진술하는 것이 좋다.

평점은 각 평가 요소에 따라 상, 중, 하 평가를 해서 100점 기준으로

점수를 써서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칸을 굽게 표시한 가장 핵심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을 평가 요소에 따라 평가 조언을 쓰면 되고, 이 평가 조언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고쳐 쓰기를 하도록 유도한다. 가능하면 평가자가 학생과 교수 대화를 하면서 고쳐 쓰기를 지도하면 가장 효율적인 지도가 될 수 있다.

논술 평가조언표를 활용하는데 익숙해지면 논술문을 쉽게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결과를 활용해 논술을 지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 방향을 알게 된다. 위와 같은 논술 평가조언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학년별 수준별로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으며, 단계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도한 내용에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술 평가조언표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검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한다면 한 단계 진화한 논술 평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 조언 쓰기의 방법

논술 쓰기로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많은 교사들은 총체적 평가 기준에 따라 미리 상, 중, 하를 정해 놓고 간단하게 상, 중, 하로만 표기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평가를 시행하고도 결과를 단순히 상, 중, 하로만 기록한다면, 복합적인 국어능력을 다양하게 기술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평가의 의도와 가치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또 이렇게 평가하면 추후 고쳐 쓰기 지도나 교수·학습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 조언 방식이 제안된 것이다.

먼저 평가 조언은 학생의 논술 능력의 수준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평가 요소를 정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평가 조언을 할 때 쓰기의 표면적인 자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로 맞춤법은 맞는지, 문장은 바르게 썼는지,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만 조언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준거들은 학생들의 실제 쓰기와는 무관한 수사학자의 주장이나 명문장가의 모범적인 글에서 추출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쓰기 발달 과정 속에 있는 학생들의 글은 항상 부족하고 오류투성이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²¹⁾ 그래서 논술 평가조언표를 통해 학생의 논술 능력을 알고 그 단계에 가장 필요한 평가 조언을 해야 한다.

평가 조언을 할 때 잘못된 점 위주로만 지적하면 학생들에게 논술 쓰기에 부정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학창시절 내내 글쓰기 교육을 받고도 평소에 글쓰기를 하는 교양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²⁾ 잘못된 점 위주로만 지적하는 첨삭을 지양하고 학생의 논술 능력의 발달 단계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깨달음인지를 중심으로 평가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논술문에 보이는 오류를 한꺼번에 수정해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논술 능력은 단 시간에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만 한다. 잘못된 평가 조언은 학생들에게 글쓰기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려 깊은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평가 조언은 논술을 쓴 학생이 자신이 쓴 논술문을 직접 지각하고 판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논술 능력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은 틀렸다’나 ‘잘못된 논증이다’ 정도로 말하는 추상적인 평가 조언은 학생이 어떻게 고쳐 쓰기를 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평가 조언은 학생의 논술 쓰기에 대한 성취 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부족한 논술 능력에 대한 정보를 알게 하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수정 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학생들에게 논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논술에 대

21) 김라연, 앞의 논문, 104쪽 참조

22) 박영민(2006), 「반성적 쓰기를 활용한 작문 평가 방안」, 『새국어교육』 제73호, 41쪽 참조

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자기 주도성을 갖게 하여 더 적극적으로 논술 쓰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학습자의 논술 능력의 수준을 파악하여 평가 조언을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논술의 주제에 따라 학습자가 잘 이는 논제라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학습자가 잘 모르는 논제일 경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학습자의 논술 능력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논술 능력의 수준에 따른 논술문의 표본을 마련하는 것이 평가의 과정을 쉽게 하는 방법이 된다. 논술 능력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평가 조언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교사의 전문성은 개별 학습자의 논술 능력의 수준을 파악하여 처방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끊임 없는 관찰로 정확한 교육적 처방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논술 평가를 하는 교사는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하여 평가조언표를 통한 논술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평가 조언도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논술 능력의 특성을 기술하는 다양한 방식을 알아야만 하고, 학생들의 논술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평가 조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논술 평가자는 논술 평가 목표에 대한 이해와 평가 조언 쓰기에 관한 일련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논술 평가의 신뢰도를 더 높여가야 한다.

IV. 평가조언표 활용의 실제

1. 평가조언표를 활용한 논술 평가의 실제

평가조언표를 활용하여 논술 평가를 하면 교사가 평가의 중심에 서서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과 조언을 할 수 있다. 수업 과정 중에 학생 개개

인의 능력을 수시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쳐 쓰기로 유도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게 된다.²³⁾ 하지만 일부 교사들의 경우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 특히 논술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는 많지 않다. 대개 교사들은 논술 평가를 기피하는 편이며, 수행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에 재투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논술 평가의 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맡고 있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논술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학생들의 논술문을 평가할 때 여러 평가자가 평가하는 경우 평가자 간의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자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평가자들이 미리 표집한 몇 편의 논술문을 대상으로 주어진 평가 요소에 따라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논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논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평가 변인을 검토해야 하며,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명의 평가자가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논술 평가의 신뢰도는 채점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여러 사람이 채점하면 할수록 높아지게 된다. 특히 평가자가 평가할 표본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글을 기초로 공통된 표준을 만드는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신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온다.²⁴⁾ 하지만 평가의 여러 변인을 고려해 보면 논술 평가의 신뢰도는 어떤 경우라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학생 논술문을 한 편 제시하여 앞에서 제시한 논술 평가조언표로 실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자. 여기에 제시한 논술문은 10학년 국어(상) 1단원

23) 최미숙(2006), 「국어과 평가의 반성과 탐색」, 『국어교육』 제121집, 한국어교육학회, 91-92쪽 참조.

24) 진대연(2004),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19집, 500쪽 참조.

의 <황소개구리와 우리말>과 2단원의 <나의 소원>을 학습한 다음 수행 평가를 실시하여 쓰도록 한 논술이다. 미리 단원 학습을 하면서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 찬반 논쟁과 민족주의 논쟁에 대한 자료를 함께 읽었고, 찬반 주장에 따라 토론 학습도 실시하였다. 논술 쓰기에 대해서는 논술문의 논리적 맥락에 따른 형식 갖추기와 설득력 있는 논거 제시의 방법 등을 학습한 바 있다. 단원 학습을 모두 끝낸 내면화 단계에서 수업 시간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행평가가 있음을 한 달 전에 미리 예고하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성취도가 높은 과학과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는 논술 평가이기에 기본 점수를 높게 책정하여 평균 86점 정도를 받도록 한 수행평가였다. 아래 논술문은 90점을 받은 것으로 원 논술문에서 띄어쓰기만 교정하여 제시하였다.

<학생 논술문 1>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국경의 의미도 사라져 가고 있다. 미국산 패스트푸드를 먹고 이태리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① 이제 세계는 자기 나라에만 갇혀 사는 닫힌 사회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과의 원활한 문화 교류와 의사소통을 위해 세계 공용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영어의 모국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의 세계화는 미국과 선진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영어를 점점 공용어로 쓰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 역시 세계에서 인정받고 세계화의 중심에 위치하기 위해선 영어를 제대로 구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영어권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세계화에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영어권에 포함되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구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어를 버리고 영어만 사용하자는 뜻은 아니다. 많은 나라에선 영어와 함께 모국어가 여러 개 있다. 우리 나라도 한국어와 함께 영어도 모국어로 정하자는 뜻이다. 일부에선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잘못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경우라도 미국 주도의 세계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부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도 영어를 쓰는 것은 필수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영어를 알아야 미국을 이길 수 있고, 영어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삼아야 한다.

이미 영어가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어는 필수가 되었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영어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조건 민족의 자주성이나 고유문화의 보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영어를 제대로 익혀 세계화의 중심으로 진입하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더 쉬워질 것이다.

— 경산과학고 1학년 김○○

<표 3> 논술 평가조언표 활용의 실제 1

<논술 평가 조언 표>				
(1)학년 (2)반 (김○○)		논술 능력 특기사항	토론에 영심히 참여함	
논술 능력범주	논술 평가 요소	평가 요소 질문	평가	평 가 내 용
지식	논점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문제의식이 분명한가? 논의의 초점을 잘 잡았는가? 	상 중 하	문제를 잘 분석하고 논의의 초점을 잘 잡았다.
	지식의 활용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된 지식이 정확한가? 학습에 따른 지적성취를 보이는가? 정보를 충분하게 활용하였는가? 	상 중 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였다.
	내용의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주제의식이 선명한가? 	상 중 하	① 부분은 논점에서 벗어나 있다.
표현 능력	어휘의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학습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가? 어휘 사용이 풍부한가? 	상 중 하	공용어를 모국어나 쓰는 등 정확하지 않다.
	문장의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이 정확한가? 논술에 적합한 문장인가? 참신한 표현을 쓰고 있는가? 	상 중 하	문장은 정확하지만 참신한 표현이 부족하다.
	구성의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단을 잘 구분하였는가? 문단의 논리적 흐름이 적절한가? 단계적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상 중 하	서론이 길고 상대적으로 본론의 논의가 짧다.

사고력	자기 의견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의견을 생성하였는가? • 깊이 생각한 의견인가? • 적절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인가? 	<table border="1"> <tr><td>상</td></tr> <tr><td>중</td></tr> <tr><td>하</td></tr> </table>	상	중	하	자기 주장은 대체로 뚜렷하다.
상							
중							
하							
논증의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제와 결론의 연결이 타당한가? • 논증이 이루어졌는가? • 반론을 염두에 둔 논증인가? 						
설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근거가 타당하여 공감할 수 있는가? • 과도한 일반화나 단정은 없는가?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발상을 하였는가? • 합리성을 갖춘 발상인가? • 비판의식이 작용하고 있는가? 						
총체적 평어	문제를 잘 파악하였고 자기주장은 뚜렷하나 논증의 타당성과 설득력 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평점	90				
평가 조언	논증의 타당함	이 논술은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경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즉 ① 영어권 국가가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②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면 세계화에 유리하다. ③ 미국 주도의 세계화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증은 반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면 고유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반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써 세운 논증이 쉽게 무너지지 수 있다.					
	설득력	이 논술에서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① 영어권에서 자라야 영어를 잘 구사한다. ② 이미 공용어가 여러 개인 나라가 있다. ③ 영어를 공용어로 하면 영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는 반론의 근거를 통해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지 않아도 잘 사는 나라(프랑스 등)가 있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핀란드,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도 세계화에 뒤쳐져 있거나 영어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류층과 하위 계층의 언어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반론을 할 때 영어를 공용어로 하면서도 모국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해야 설득력을 보강할 수 있다.					

과하고 학생으로는 중급 정도의 논술 능력을 보이는 논술문이다. 공용어를 모국어로 쓰는 등 사소한 오류를 많이 노출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

은 수정해야 할 부분인데 학생에 따라 자세히 밝혀 줄 필요도 있지만 수정할 것이 많지 않은 경우는 밑줄 친 것을 보고 학생 스스로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스스로 고쳐 쓰도록 해야 한다. 수업 한 시간 내에 논술문을 완성한 학생은 60명 중 4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미완성인 상태로 제출하였다. 위 논술문은 오류가 많은 편이지만 자기 나름의 논리로 논술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논술 평가조언표에 따라 100점을 기준으로 90점으로 평가하였다.

2. 평가조언표를 활용한 고쳐 쓰기 지도의 실제

주어진 시간 안에 쓰는 논술 평가의 결과로 제출된 논술문은 ‘초고’ 형태의 논술문이다. 초고는 수정을 통해 완성해야 하는 논술문으로 완성된 논술문에 비해 학생의 사고 과정과 논술 능력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자료이다. 교사는 이 초고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학생의 논술 능력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별 학생의 논술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쳐 쓰기 지도에 활용해야 하며 이후 교수·학습에도 참고해야 한다.

고쳐 쓰기 지도란 학생이 쓴 논술문을 평가하고 난 후 평가 조언을 통하여 학생이 자신의 논술 능력을 자각하게 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수정해야 할 평가 요소를 알고 평가 조언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논술문을 고쳐 쓰도록 하는 교수·학습 활동이다. 가장 좋은 고쳐 쓰기 지도는 학생과 교수 대화를 하여 학생이 직접 고쳐 쓰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보통 한 반의 학생이 서른 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이 교수 대화를 하며 고쳐 쓰기를 지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논술 평가를 할 때 평가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학생이 스스로 고쳐 쓰기를 하도록 지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학생들이 제출한 논술문은 초고이기 때문에 고쳐 쓰기를 꼭 해야 하고, 이 과정이 논술 능력 향상에 매우 요긴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지도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논술 평가를 하고 나면 반드시 결과를 학생들에게 인지하게 하고, 고쳐 쓰기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학생이 스스로 고쳐 쓰기를 한다 해도 평가 조언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논술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학생은 대체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이는 것만 수정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반대로 지나치게 자세하게 첨삭된 논술문을 받으면 대체로 논술문을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고치는 과정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자신의 논술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고쳐 쓰기는 평가 조언을 보고 자신의 논술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교정된 다음에 해야 효율적이다.

고쳐 쓰기 활동은 학생이 자신의 논술을 독자의 관점에서 읽으면서 수정하는 활동이다. 자신의 논술문을 읽으면서 독자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자신의 논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학생이 처음 의도한 논술과 작성된 논술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평가 조언이 된다. 잘 기술된 평가 조언을 보면 학생들은 자신이 의도했던 논술과 실제 작성한 논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논술 능력을 인지하면서 고쳐 쓰기를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관련된 지식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논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까지 향상될 수 있다. 즉 자신이 의도했던 논술과 작성된 초고의 불일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층 심화된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논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고쳐 쓰기를 할 때 처음에 계획했던 논술의 논점을 잊고 세부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기 쉽다. 학생들이 주로 표현 위주의 고쳐 쓰기만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주로 사고력 중심의 고쳐 쓰기를 유도하는 평가 조언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논술 능력 수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고력 중심의 고쳐 쓰기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논술 능력에 맞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평가 조언은 학생 수준에 맞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제시한 평가조언표로 논술문을 한 편 더 평가하면서 어떻게 고쳐 쓰기 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자. 위에 예를 든 논술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논술문을 예로 들어 보겠다.

<학생 논술문 2>

자국어 사랑이 남다른 프랑스에서 컴퓨터나 이메일 등 몇몇 외래어를 프랑스 고유어로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다.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열렬한 찬성의 의견도 있었다. 프랑스의 자국어를 가꾸려는 노력은 잘못된 것일까? 요즘 우리나라의 영어 몰입교육 정책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민족의 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다. 언어에는 그 민족에게만 이해되는 특수한 정서와 문화가 있는 것이다. 그 민족의 고유한 정서는 그 민족의 언어를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되고 다른 언어를 통해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①<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민족 고유의 정서와 전통은 사라지게 된다.>

②<영어 공용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문화의 다양성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유의 문화라는 큰 재산을 잃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 한류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문화가 자원이 되고 상품이 될 수 있는 시대이다. 고유어를 보존하여 고유의 문화를 지키면 더욱 활발한 문화 발전을 물려줄 수 있다.>

말이나 글에는 그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이 깃들어 있으며, 이것이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시대의 단기적인 유용성만으로 영어의 공용어화를 추진하다면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세계화 시대일수록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 경산과학고 1학년 김○○

<표 4> 논술 평가조언표 활용의 실제 2

<논술 평가 조언표>				
(1)학년 (2)반 (김○○)		논술 능력 특기사항	교내 대회 급상 수상	
논술 능력범주	논술 평가 요소	평가 요소 질문	평가	평 가 내 용
지식	논점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문제의식이 분명한가? 논의의 초점을 잘 잡았는가? 	상 중 하	문제를 잘 분석하고 논의의 초점을 잘 잡았다.
	지식의 활용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된 지식이 정확한가? 학습에 따른 지적성취를 보이는가? 정보를 충분하게 활용하였는가? 	상 중 하	학습한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를 풍부하게 활용하였다.
	내용의 통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주제의식이 선명한가? 	상 중 하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으며 주제가 선명하다.
표현 능력	어휘의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학습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가? 어휘 사용이 풍부한가? 	상 중 하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어휘 사용이 풍부하다.
	문장의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이 정확한가? 논술에 적합한 문장인가? 참신한 표현을 쓰고 있는가? 	상 중 하	대체로 논술에 적합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구성의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단을 잘 구분하였는가? 문단의 논리적 흐름이 적절한가? 단계적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상 중 하	2, 3 문단의 논리적 흐름 상 비약된 부분이 있다.
사고력	자기 의견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의견을 생성하였는가? 깊이 생각한 의견인가? 적절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인가? 	상 중 하	깊이 있는 사고를 하여 자기 의견이 뚜렷하다.
	논증의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제와 결론의 연결이 타당한가? 논증이 이루어졌는가? 반론을 염두에 둔 논증인가? 	상 중 하	반론을 염두에 둔 논증이 되지 않았다.
	설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근거가 타당하여 공감할 수 있는가? 과도한 일반화나 단정은 없는가? 	상 중 하	타당한 근거를 통해 설득력을 높였다.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발상을 하였는가? 힙리성을 갖춘 발상인가? 비판의식이 작용하고 있는가? 	상 중 하	새로운 발상을 하였고 비판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총체적 평어	독창적인 사고를 전개하였고 성득력 있는 논술을 썼다.	평점	98
평가 조언	구성의 적절함	3문단의 경우 2문단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면 우리 문학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3문단을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영어를 공용어로 쓰더라도 우리 문학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을 하면 3문단 전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2문단과 3문단 사이에 2문단의 의견을 강화할 수 있는 문단을 넣는 것이 좋다. ①의 내용을 새로운 문단으로 작성하여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분명히 하면 자연스러운 구성이 될 수 있다.	
	논증의 타당함	반론을 염두에 두지 않은 논증이 보인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면서도 우리 고유문화를 지킬 수 있고, 오히려 영어를 통해 세계에 우리 고유문화를 알 수 있다는 반론을 펴면 핵심 논리가 흔들릴 수 있다. 왜 영어를 공용어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하여 좀 더 전제를 보강하는 필요가 있다.	

고 1학년 학생으로는 뛰어난 논술 능력을 보이는 논술이다. 학습한 자료를 잘 활용하여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했지만 의욕이 넘쳐서인지 논증의 타당함이 부족해 보인다. 이 논술문의 경우는 ‘구성의 적절함’ 부분과 ‘논증의 타당함’ 면에서 평가 조언을 하였는데, 학생이 생각했던 과정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조언을 해야 한다. 교사가 결과물인 논술문만 가지고 이 문구 저 문구를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바꾸라고 하는 조언 방식은 학생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논술문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여 스스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 인식이 교정되지 않은 채로 교사가 마음대로 고치면 학생들은 자신의 논술 능력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자칫 논술 쓰기를 싫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반드시 학생이 스스로 고쳐 쓰기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위에 제시한 평가 조언으로 고쳐 쓰기를 유도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게 하였다.

<고쳐 쓴 논술문>

자국어 사랑이 남다른 프랑스에서 컴퓨터나 이메일 등 몇몇 외래어를 프랑스 고유어로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다.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반대

하는 의견도 있었고 열렬한 찬성의 의견도 있었다. 프랑스의 자국어 가꾸기는 잘못된 것일까?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어 공용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보자.

민족의 언어에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다. 언어에는 그 민족에게만 이해되는 특수한 정서와 문화가 있는 것이다. 민족의 고유한 정서는 민족의 언어를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되고, 다른 언어를 통해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면 아무리 우리말을 강조하더라도 그 실용적 가치로 하여 영어를 더 우선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또 영어 몰입 교육을 하게 되면 영어 능력에 따라 성적이 좌우될 것이고, 영어 사교육이 더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말은 하층민의 말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전통은 실용의 논리에 밀려 점점 영어권 문화에 의해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어 공용어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문화의 다양성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쓸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유문화라는 큰 재산을 잃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 한류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문화가 자원이 되고 상품이 될 수 있는 시대이다. 고유어를 보존하여 고유문화를 지키면 우리의 가치 있는 문화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말이나 글에는 그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이 깃들어 있으며, 이것이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된다.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시대의 단기적인 유용성만으로 영어 공용어를 추진하다면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술 평가를 한 후에는 평가 한 자료들을 잘 모으고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한 논술문과 논술 평가조언표는 평가 후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학생에게 돌려주어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하면 좋다. 즉 고쳐 쓰기 전의 논술문과 평가조언표와 고쳐 쓴 후의 논술문을 함께 보관하면 학생의 논술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1학년 때부터 논술을 학습하고 평가한 자료를 포트폴리오로 만든다면 그 과정에서 논술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지도의 한 방법으로 고쳐 쓰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쳐 쓴 논술문을 다시 평가하여 고쳐 쓰기 전의 논술문의 점수와 합산하여 그 평균을 성적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논술 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노력을 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 의욕을 잃게 되는 문제점을 교육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된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평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수행평가 실시 의도에 더 가까운 방법이 될 수 있다.

논술 고쳐 쓰기 지도이든 논술 평가이든 한두 번의 실천으로 논술 능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킬 수는 없다. 교수·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꾸준히 논술을 쓰기 위한 사고 훈련을 하고, 실제 수업 과정에서 논술을 쓰게 하여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논술을 쓰게 하는 시간을 교수 학습을 방치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까 두려워하여 수업 중에 논술 쓰기를 꺼려한다. 논술 쓰기를 과제로 내면 학생들에게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논술 학습 초기에는 이런 과정에서 논술 쓰기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논술 쓰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수업 중에 논술 쓰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

평가 조언의 효과가 크려면 학생들의 논술 쓰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수준에 가장 적절한 고쳐 쓰기 지도까지 이루어져야 논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고 가장 효용성이 큰 논술 평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 편의 고쳐 쓰기 지도로 모든 오류를 고쳐서 논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참다운 고쳐 쓰기 지도와 논술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 결론

이 글은 학교 현장에서 논술 평가 방식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평가조언표를 활용한 논술 평가와 고쳐 쓰기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평가조언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분석하여 지식, 표현 능력, 사고력의 층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평가 요소로 ‘지식’은 논점의 파악, 지식 활용 정도, 내용의 통일성으로 설정하였고, ‘표현 능력’은 어휘, 문장, 구성의 적절함으로 설정하였으며, ‘사고력’은 자기 의견 생성, 논증의 타당함, 설득력, 독창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 요소를 활용한 평가표로 논술을 평가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였으며, 평가 조언을 쓰는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고쳐 쓰기를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첨삭 지도는 학습자의 논술문에서 모든 오류를 한꺼번에 수정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논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거나 고쳐 쓰기 지도로 쉽게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평가 조언의 방법은 학습자의 논술 능력에 따라 수준을 파악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교정해야 할 평가 요소에 따라 논술 능력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수준과 단계에 맞는 고쳐 쓰기를 유도하면 학습자에게 논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논술 두 편을 제시하고 논술 평가조언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고쳐 쓰기를 하는 실체를 예로 들었지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 논술 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독서와 토론, 논술이 일상화된 수업 문화가 갖추어져야 하며, 신뢰도를 갖춘 논술 평가를 하기 위한 교사들의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본 논문은 2008. 6. 29. 투고되었으며, 2008. 7. 4. 심사가 시작되어 2008. 7.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라연(2007), 「총체적 쓰기 평가와 분석적 쓰기 평가의 상관 연구」, 『이중언어학』 제35호.
- 김미영(2004), 「논술문 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김진경(2005),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박영민(2000), 「쓰기 수행평가의 평가준거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박영민(2006), 「반성적 쓰기를 활용한 작문 평가 방안」, 『새국어교육』 제7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종훈(2004), 「쓰기 평가를 통해 본 국어과 창의성 개념 설정의 문제」, 『국어교육학 연구』 제20집, 국어교육학회.
- 박태호(2005), 「6가지 주요 특성 평가법을 활용한 논술 고쳐 쓰기 지도」, 『새국어교육』 71호.
- 서정혁(2008), 『논술교육, 읽기가 열쇠다』,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 혁(2004), 「초등학교 국어과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20집, 국어교육학회.
- 염혜정(2006), 「작문 수평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 이화여대 석사논문
- 원진숙(1995), 『논술교육론』, 박이정.
- 원진숙(1998), 「논술능력 평가 기준과 논술 교육의 방향」,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 오찬세(2006), 「과학고등학생 논술문의 수준별 양상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이병민(2005), 「논술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육비평』 제19호 겨울.
- 이수진(2008), 「쓰기 평가의 해석 모형과 활용 연구」, 『작문연구』 제6집, 한국작문학회.
- 이인제(2003), 「국어교육의 질 향상과 평가 체제 개선」, 『국어교육』 제112집, 한국어교육학회.
- 이희숙(2004), 「중학교 쓰기 영역의 수행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홍익대 석사논문.
- 임천택(2002),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평가」, 박이정.
- 임천택(2003),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쓰기 평가 방법과 결과 해석 방안」, 『어문학교육』 21집.
- 정은정(2005), 「생태학적 평가관에 기반한 논술 능력 발달 연속체 개발」, 서울교대 석사논문.
- 주강식(1996), 「논술의 평가」,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진대연(2004),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19집, 국어교육학회.

최미숙(2006), 「국어과 평가의 반성과 탐색」, 『국어교육』 제121집, 한국어교육학회.
한철우 외(2003), 『과정 중심 작문 평가』, 원미사.

Leslie, L., & Simpson, M.(1997), Authentic literacy assessment : an ecological approach. N

Y : Long man.

Flower, L, 원진숙 · 황정현 역(1998), 『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 동문선.

<초록>

평가조언표를 활용한 논술 평가와 고쳐 쓰기 지도 방안

박현동

학교 현장에서 논술 평가의 방법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논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조언표를 활용한 논술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 조언을 활용한 고쳐 쓰기 지도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평가조언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분석하였고, 그 범주를 지식, 표현 능력, 사고력으로 구분하였다. 또 각 평가 요소로 지식은 논점의 파악, 지식 활용 정도, 내용의 통일성으로, 표현 능력은 어휘, 문장, 구성의 적절함으로, 사고력은 자기 의견 생성, 논증의 타당함, 설득력, 독창성으로 나누었다.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논술문을 평가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였으며, 논술 능력의 수준을 판단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교정해야 할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조언을 함으로써 고쳐 쓰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논술 능력을 파악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교정해야 할 논술 평가 요소에 따라 평가 조언을 제공하면 더 쉽게 고쳐 쓰기를 지도할 수 있다. 학습자의 논술 능력에 맞는 고쳐 쓰기 지도를 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논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다.

【핵심어】 논술 평가, 논술능력, 논술 평가 요소, 평가조언표

<Abstract>

Teaching Method of Rewriting and Essay Assessment
Applying Advice Standards

Park, Hyun-dong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essay assessment, the application of assessment standards and teaching method of rewriting are suggested in this paper. To establish assessment standards, the level of students' essay writing ability has been analyzed in the categories of knowledge, expressiveness and thinking ability. The 'knowledge' can be evaluated at the aspects of 'argument', 'correctness of knowledge' and 'coherence'. The 'expressiveness' is based on 'vocabulary', 'sentence' and 'organization'. Finally, the 'thinking ability' can be divided into the categories of 'creation of ideas', 'logicality', 'persuasiveness' and 'originality'.

The method of essay assessment are structuralized on the basis of assessment elements. Assessment advice is corrective feedback that must be followed after essay test through which the most crucial weakness of testee is determined. The advice after grasping the learner's ability thoroughly can lead to easy rewriting and foster positive attitude of essay writing.

【Key words】 essay assessment, essay writing ability, assessment standards, advice standards